

아브라함의 부르심

로마서 4 : 16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오늘 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브라함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주간에 걸쳐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여 아브라함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I. 아브라함의 주변 환경

1.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The Farther of Multitude)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 년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 년전이라고 하면 한국 역사로는 단군이 나라를 세운 후 약 300 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로 불리워지듯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 난 사람이 아니고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여호수아 24:2-3에 의하면 그의 가족들은 우르에서 살 때 우상
숭배자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4 : 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 24 : 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창세기 11 : 26 데라는 칠십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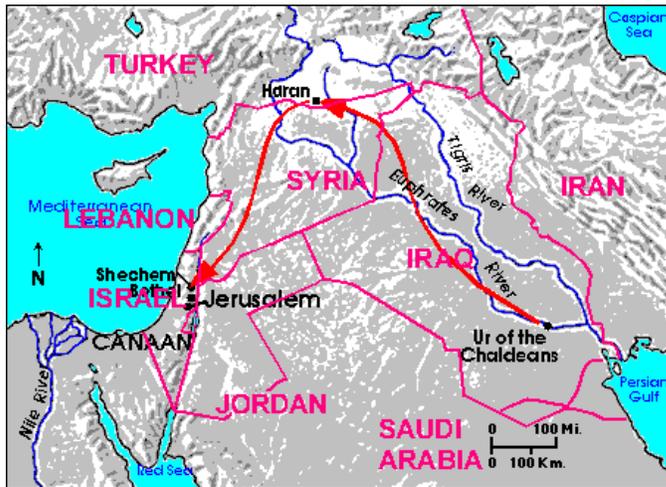
창세기 11 : 27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세기 11 :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11 :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창세기 11 : 30 사래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은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당시의 우르는 아주 문화가 발달된 이상승배가 성행하던 그런 개화된 도시였습니다.

(세계 4대 고대 문명 발상지 :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갠지스강 유역, 메소포타미아지역, 애굽의 나일강 유역)

사도행전 7:2-4에 의하면 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 : 2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사도행전 7 : 3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사도행전 7 :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첫번째 부름을 받은 후,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과 함께, 여태까지 살던 우르를 떠나 300마일 북쪽에 위치한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11 :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그들이 하란에 체재할 때 데라가 205살에 죽었습니다.

창세기 11 : 32 데라는 이백 오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약속이 따르는 더 분명한 부름을 두 번째 받았습니다(창 12:1-2).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 :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II. 아브라함의 부르심

1. 다음은 아브라함의 부름의 성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1-2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범민족적 축복-큰 민족을 신약의 영적 후손을 포함)

창세기 12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제사장적 축복¹)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질,

2절과 3절은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은 믿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범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은,

불신자 시절 살던 삶의 스타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전의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스타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 시절 살던 Life Style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불신자들의 기본적 삶의 스타일입니다.

인본주의라 함은 신본 주의의 반대로, 인간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인간의

이성을 그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시절의 본토입니다.

세속주의는 경건주의의 반대로 영적 즐거움보다는 육적 쾌락을 추구하는 삶의 스타일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본 주의자들의 친척입니다.

물질만능주의는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중요시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¹. 그 자손에 대한 제사장적국가로서 부름은 출 19:3-6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모세에게 속하기를 위하여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W. Kaiser OT TH. P 109 한 p. 151)

물질 만능 주의는 불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인본 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 주의에서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창세기 12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창세기 12 :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줍니다.

창세기 12 :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하나님께서서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인본 주의, 세속 주의, 물질 만능 주의를 떠나라고 하셨지만, 이 구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한 순종은 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을 못한 경우, 그의 신앙 생활 안에 남아 있는 육신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점차 점차 징계의 손길을 가하시며, 연단을 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점점 온전한 신앙인격으로 성장하도록 하십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은 하되 온전한 순종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100세가 된 노인이 생산을 할 수 있는 믿음에까지 키워 주시며, 그렇게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까지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